

<성평등한 농활 만들기>

◎ 성평등한 농활을 위한 생활수칙 - 각 마을 농활대에게 다음 규율을 제안합니다.

- 혼숙 절대 금지, 기본이겠죠? 성폭력은 사전 예방도 중요합니다.

- 술자리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옆자리에 앉히거나 스킨쉽, 술 따르는 것 강요하지 않기.

-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 상대방을 비하하는 욕은 하지 않기. 좋은 말, 고운 말, 격려하는 말을 생활 화하기

- 밤에 남녀간 개인행동은 되도록 하지 말아요!

: 농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개별적인 행동은 자칫 예기치 못한 사고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 일은 특별히 힘이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니면 남녀 구분하지 않기.

- 밥 짓기. 청소하기. 자발적으로 함께 하기.

: 여자라고 특별히 더 잘하지도 않고, 남자라고 특별히 더 잘 못하지도 않는다. 남녀 역할에 있어서 성별 분업을 하지 맙시다. 또한 평소에 집에서 엄마에게 전담되었던 가사노동의 중요함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스스로 가사노동을 하는 달라진 모습도 보여드립니다. ^^

- 월경 중인 여학우 배려하기.

: 농활 가서 월경을 시작하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아프기는 한데 말은 못하는 등 많은 고충들이 따릅니다. 이것 때문에 피임약을 먹어 주기를 조절해야 하거나 농활 자체를 거부하는 여학우들도 많습니다. 농활대 자체에서 혹시 모르니 생리대와 생리통약을 준비해봅시다. 월경 중인 여학우가 무리해서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거나 육체적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로 배치되지 않도록 배려해줍니다.

◎ 농활 성폭력

첫째 . 반성폭력 농활만들기...

우리가 1년에 4번씩 가는 농활.. 오랜만에 어머님, 아버님들도 뵙고, 땀흘려 일하며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도 깨닫고, 같이 가는 친구들과 가족처럼 친해져서 돌아오는 농활..

이렇게 정겨운 농활에서도 성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박한 농촌이라는 이미지와 농활대에 대한 신뢰로 성폭력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환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농촌 역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사회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잘못된 성 인식,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농촌에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 그렇다면 농활 성폭력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농활 성폭력이란, 농활기간을 포함하여 농활을 수행하는 과정, 농활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예를 들면 농활 준비활동 등)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농활과 관련된 구성원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입니다. 농활과 관련된 구성원이라 함은, 농활을 수행하는 농활대원, 농민회, 마을농민 등을 말합니다. 즉, 농활 성폭력이란 농민과 학생 사이에, 학생과 학생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모두를 말하는 거죠.

또한 사람들이 성폭력의 개념에 대해 어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성폭력이라 함은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을 매개로 행해지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모두가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언어적 폭력 또한 성폭력이 될 수도 있지요. 흔히 하기 쉬운 외모로 평가하기, 성별 분업 고정관념 가지고 이야기하기(여자가... 남자가....) 등등도 성폭력이 될 수 있어요.

#. 피해자 중심의 원칙

농활뿐만 아니라,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회 정치적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입니다. 강도 등의 범죄에서는 피해자를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그릇된 관점들이 아직도 팽배합니다. 피해자를 탓하는 것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다가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냐?'고 질책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원칙은 그리 거창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며,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는 것에서부터 피해자 중심의 원칙은 세워집니다. 성폭력의 규정에 있어서 판단지점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경험'이어야 합니다.

성폭력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그 행위를 불쾌하게 느끼고 자신의 몸에 대한 침해행위로 느끼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성폭력에 대한 판단기준에 '객관'을 적용한다면, 얼마만큼 만졌는가 어떤 발언을 했는가 식의 드러나는 상황만으로 물리적으로 성폭력을 판단하는데 그 것 자체가 모순적이며, 그것은 피해자의 주관과 사고를 무시하는 결과만 낳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겪은 '경험'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2. 농활 성폭력이 일어나면....

농활 성폭력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피해자가 말하기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농활이라는 것이 농민과 학생의 연대라는 성격을 가지고 수행되는 활동인데, 자신의 피해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농민과 학생 연대에 커다란 금이 가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 까하는 걱정이 되게 때문입니다. 농민에 의한 성폭력일 경우, 학교와 마을 사이에 인식차가 존재합니다. 또 잘못된 연대의 관점과 예의범절에 대한 강조로 인해 피해자에게는 성폭력의 경험을 밝히기 힘든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농활대원에 의한 성폭력일 경우, 농활대라는 공동체는 과/학부/단대에서 일상적으로 지내오던 인간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것이므로 농활 기간 뿐만 아니라 이후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3. 신뢰의 문제입니다.

가해자와 농민과 학생이 소속된 조직내에서 성폭력 사건 접수를 사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입장을 세우지 못할 경우 그것은 진정한 연대가 아닐 것입니다. 성폭력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치유를 중심에 두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진짜 농민과 학생의 연대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기초하여 이러한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더욱더 신뢰 있는 연대활동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4. 농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활대에서는,.>

(1) 사전교양에서 농활 성폭력에 대한 교양과 토론을 진행합니다.

마을 농활대 전체 교양이나 분반원 교양 등에서 반드시 교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꼭 반성폭력 지수 테스트에 있는 문항들 중 이견이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그리고 반성폭력 규율을 만들면서 토론을 진행하여 성폭력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2) 농활 반성폭력 규율을 만듭니다.

중앙에서 아무리 규약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각 마을 농활대에서 농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없으면 농활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세우는 규율에 반드시 반성폭력의 내용으로 규율을 만듭니다. 농활대 자체에서 함께 교양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짧지 않은 일정을 남겨 학우가 함께 보낸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규율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으니 세심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농활 수칙을 참고하여 만들어봅니다.

(3) 각 마을 농민주체분들과 농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얘기를 진행합니다.

농활에서 성폭력을 바라보는 태도는 학교 내에 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집니다.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농활대 전체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린다던지, 농민분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만든다는 이유로 농활에서의 성폭력을 은폐하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활 기간 중 성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중앙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농활대 분위기를 위해서나 농민분들과의 원만한 만남을 위해서 성폭력을 묻어두는 것은 농민 연대의 뜻을 살리고 원활한 농활을 만들어 가는데 일시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나, 성폭력을 다시 발생하도록 방치해두고, 도리어 피해자의 활동들을 통제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성폭력을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농활대의 가부장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농활 기간에 성폭력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이를 문제제기 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활이 성폭력에 대한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농민과 학생간의 연대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때 그 어느 공간에서보다도 성폭력에 대해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연대활동을 이루어 내기 위해 농활대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그럼, 진짜로 농활 성폭력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1)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스킨십이나 성적인 대화 등의 언어사용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은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물어두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죠? 농활 주체, 혹은 반성폭력주체(고학번 여학생 또는 여농반 주체가 맡는게 좋겠죠)에게 말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갑시다.

(2) 농활주체/ 여성농민반 주체는

① 농활대장이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농활대원들의 행동지침 참고)

② 피해자가 처음 사건에 대해 얘기할 때, 피해자의 모든 얘기를 자세하게 듣고 반드시 빠짐없이 기억해둡니다. 피해자와의 얘기가 끝나고 나면 혼자 있을 때 사건의 개요, 피해자의 심리상태,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기록해둡니다. 빠짐없이 기억하고 기록해야하는 것은 또다시 피해자에게 사건이나 심리상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기 위함입니다. 또 다시 물어보게 되었을 때 피해자의 고통은 배가되기 때문입니다.

③ 성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처음 대해보는 성폭력 사건이겠지만 골치 아파하거나 어쩔 줄 몰라하고 있으면 피해자는 또다시 좌절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졌을 때 피해자는 사람에게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④ 성폭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고민하고 대략적인 방향이라도 잡아(예를 들어 농활본부로 신고해서 농활본부와 농민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 등) 피해자와 함께 얘기합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혹여나 강압적이어서는 안됩니다.

⑤ 농활본부로 빠르게 신고합니다. (농활 성폭력 신고센터로 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농활본부에 빠르게 신고해야지 농민회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농활수행기간 도중이라도 지도사업을 온 본부 사람에게나 본부로 직접 신고를 합니다. 피해자로부터 성폭력을 신고받은 지 하루 안에 농활본부로 신고합니다.

⑥ 농활대원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교양을 다시금 진행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유합니다.

농활대원에 의한 성폭력일 경우 농활대원들 사이에서 더 이상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농민에 의한 성폭력이라도 성폭력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금 성폭력에 대한 교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얘기해줍니다. 이 때 구체적인 사건경위까지 얘기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농활대원들이 괜히 피해자가 누군지 추측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농활대원들이 악의가 없다 할지라도 피해

자에게 별로 도움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는지 집단적인 의견을 모아 가면서 성폭력 해결에 대한 관점을 잡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있어 자체적인 역량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 농활본부의 성폭력신고소 주체에게 도움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⑦ **농활본부 여성농민반 주체를 중심으로 피해자가 성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고통이 배가되기 때문입니다. 여성농민반 주체 등 성폭력에 대해 인식이 있는 사람이 피해자를 챙기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폭력에서는 피해자가 고통에서 헤어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피해자와 함께 가까운 성폭력상담소 등의 전문기관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⑧ **피해자를 가해자와 대면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을 해결하고자 하는 조금한 마음에 피해자를 가해자와 대면시키게 되면 피해자는 다시금 성폭력을 경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가해자와 대면시킨 농활대장/여성농민반 주체에게까지 믿음을 저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⑨ **가해자는 농활본부의 도움을 받아 만납시다.**

가해자를 만나게 되면 성폭력 사건의 진상과 경위, 반성의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 농활대가 이후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으나, 되도록 농활본부의 도움을 받아 함께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⑩ **농활 마을주체분과 만나서 농활 성폭력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만나서 얘기하면서 군 농활본부와 군 농민회와 함께 해결할 것에 대한 얘기를 진행합시다. 마을주체 분에게도 피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농활대 및 농활대원들은 농활대원들은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사고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① **‘내가 피해자라면 어땠을까? 지금 어떨까?’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가 누군지 억지로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알려고 하면 피해자는 더욱 위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서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피해자를 괜히 동정한다든지 하는 태도로 피해자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③ **혹시 피해자가 누군지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행동합시다.**

- 가장 먼저 할 일은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일입니다.
- 피해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믿어주고 신뢰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라도 여러 사람이 사건이나 감정상태 등에 대해서 여러 번 물어보게 되면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더욱 나빠집니다. 물어보는 사람은 처음 물어볼지 몰라도 피해자는 여러 번 대답하게 되면서 성폭력을 당할 당시의 순간과 심리가 생각나 더욱 괴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농활대장이나 여성농민반 주체를 제외한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피해자에게 성폭력과 관련한 어떤 얘기도 먼저 꺼내서는 안됩니다.
-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 좀 더 저항하지 그랬니? 그런 데를 왜 갔니?"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 모든 행동의 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별첨 반성폭력 농활테스트- 농활을 준비하면서 농활대 사람들과 테스트 해봅시다.

1. 성폭력 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들의 문제이다. 농활대와는 관련이 없다. → X

성폭력은 집단내 성폭력을 조장하는 분위기 혹은 집단내 성폭력을 묵인하는 분위기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농활대 전체는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서 공동체 성원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성폭력은 사소한 일이며, 공동체 생활에 활력소가 된다. 크게 문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관계를 삭막하게 하고 대원들간의 팀웍을 가로막는다. → X

피해자는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공동체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는커녕 대원들간의 적대감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인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며 농활을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덮어두는 것이 오히려 성폭력 예방과 근절에 해악이 될 뿐입니다.

3. 성희롱 피해자는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 피해자이면서도 동아리를 옮기거나 과에 나오지 않거나 농활을 다시는 가지 않게 되는 등 계속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 O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자이면서도 계속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정신장애, 두통, 위장병, 스트레스 등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피해자 후유증)

4. '농활 성폭력'은 농활 기간 내에 농활 대원이 개입되어 있는 모든 성폭력 행위를 말한다. 농활규율을 정함에 있어 복장 등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제하는 것이나 단체, 모임에서 여성에게 주로 가사작업이나 잡일을 하게 하는 것은 '농활 성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 X

농활 성폭력은 농활 기간 내에 농활 대원이 개입되어 있는 모든 성폭력 특별법과 형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와, 성범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모독 행위로서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적 판단을 따릅니다.

또한 성폭력의 발생 원인은 불평등한 성문화에서 오는 것이므로, 성차에 기반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역시 넓은 범위의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1) 농활규율을 정함에 있어 복장 등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강제하는 것
- (2) 단체, 모임에서 유독 여성에게만 가사작업이나 잡일을 하게 하는 것
- (3) 작업에 있어 여성이 해야할 일, 남성이 해야할 일을 미리 구분짓는 것
- (4) 기타 일반적으로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판단되는 행위나 발언 업무

5. 성적 굴욕감, 수치심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된다. 가해자의 의도가 비록 친밀한 표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 O

성희롱 행위의 판단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입니다.

6. 성희롱은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여러 사람에게 행해졌을 때 문제가 된다. 단 한번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 → X

단 한번의 행위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의 행위가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다수에게 한 행위라면 법원은 보다 쉽게 성희롱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7. Y선배는 나이 어린 여자후배 X씨에게 특별한 성적 언급은 하지 않지만, 곧잘 커피, 설겅이 등 잡다한 심부름을 시킨다. X씨는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 상황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과(동아리) 선배에 대한 예의의 문제이므로 성폭력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주의해야 한다. → X

커피, 설겅이 등 잡다한 심부름을 여자후배라는 이유로 곧잘 시키는 것은 성역할에 기반한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사문화에서 비롯된 권위주의적인 행동이므로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② 여자 후배에게 커피, 설거지 등 잡다한 심부름을 곧잘 시키는 일은 성 역할에 기반한 것으로 성폭력 행위로 볼 수 있다. → O

8. 마을잔치에서 마을 농민 김씨가 농활대원 L씨(여)에게 블루스를 함께 추자고 했다.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 그 자리의 분위기를 깨기 싫어 결국 김씨와 블루스를 추게 되었다. 김씨가 술에 취해 허리를 꺼안고 몸을 밀착해 와 L씨는 기분이 불쾌했다. 이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춤을 강요한 것은 잘못이다. 게다가 L씨가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했기 때문에 명백한 성폭력이다. → O

싫다고 하는 데도 춤을 강요한 것도 잘못이고 춤을 춘다는 핑계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했기 때문에 명백한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② 김씨는 마을잔치 분위기에 따라 춤을 추자고 했을 뿐이며, 술에 취했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에 대해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X

싫다고 하는 데도 춤을 강요한 것도 잘못이고, 춤을 춘다는 핑계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명백한 성폭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했다는 것이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모독 행위로서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9. 성폭력 예방을 위해 농활대장을 비롯한 농활주체들(분반주체, 실무주체 포함)이 주의해야 할 역할과 자세를 적은 것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내용은?

① 농활대원들이 성적 농담(음담패설)을 삼가도록 강조한다. → O

② 농활대장이 아닌 이상 별 책임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 X

농활에서의 성폭력은 단순히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농활대가 성폭력 근절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농활대 내에서 대원들은 성폭력근절의 의지를 확고히 세워, 성폭력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농활대 안에서 성폭력에 대해 별로 인식이 없다면 농활 성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③ 자신의 말이 공격적이고 위압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O

④ 반성폭력 자치 규약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 O

※ 농활 성폭력- 성폭력 사건과 언론의 문제

05년도 서울대 농활 중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이버 상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고, 언론이 이번 사건의 여론 악화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언론은 '서울대 농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서울대생”과 “성폭력”만을 부각시켜 선정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실제로 사건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 거두절미 “아가씨, 아줌마”에만 집착

연합뉴스와 경향신문 등에서 <농활 서울대생, 농민 '성폭력' 시비로 철수>등 제목으로 기사가 나간 이후, 여론은 '서울대생'을 비난하는 것으로 악화되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신문기사는 농활 철수에서 문제가 된 사건의 전후 맥락은 모두 삭제한 채 '아줌마, 아가씨' 호칭 사용만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론 총 6개 마을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농활대가 철수했으며 각 단위마다 상황과 입장이 다르다.

이후에도 언론은 학생회 측과 농민회 측이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문화적 차이에 의한 사소한 갈등'을 학생측에서 트집을 잡은 것 인양 보도했다. 이 같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입장서를 통해 '아줌마, 아가씨 호칭'에 대한 문제제기는 술자리에서 여학생을 부차적인 존재로 보는 등의 맥락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해당 농활대 측에서 마을 분들과 논의를 통해 공개적인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농활대는 사건 발생 이후 더 이상 농활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철수했지만, 마을 분들과 오해를 푸는 과정을 거친 뒤 올 여름 내로 다시 농활을 가기로 했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

그러나 언론의 보도에선 이와 같은 상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때문에 사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치달았다.

2. 선정적인 보도로 사건의 본질 왜곡

현장 활동에서의 성폭력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며, 서울대에 국한된 일도 아니다.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학생측이 철수하는 일도 종종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특히 언론의 관심을 받은 것은 소위 명문대인 '서울대' 농활대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건에 대한 여론을 '오만한 서울대생', '지나치게 트집잡는 페미니스트' 등으로 몰고 갔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면서 농민회와 농활대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해결과정 또한 조심스럽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 학생회 측에서 공개 여부나 그 수위를 놓고 논의의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러나 자세한 정황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선부른 보도를 함으로써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심각한 신체적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사회대 농활대의 경우, 학생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농민회 측과 논의를 했으며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사건의 ‘공개’ 수위를 놓고 협의하던 중 농민회가 성폭력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철수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조선일보 등 언론은 명백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소재 논쟁”, “양측 폭로전” 등으로 비화하면서 여전히 농활대와 농민회의 “갈등”으로 보도했다. “문제 일으킬 거면 농활 오지 마라”는 발언까지 기사화하고 있다.

3. 학생회와 농민회 사이 소통노력 막아

농민회와 학생단위는 동등한 주체로 현장 활동에 참여하며, 농촌 사회가 소수자 집단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농활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농민회 측과의 연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학생들이 농민회가 기반을 둔 지역에 들어가 현장 활동을 진행하는 만큼 농민회 측의 의견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가해자가 지역 주민이거나 농민회 소속일 경우 피해자들은 그만큼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후 맥락을 삭제하고 다른 사건들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언론의 선부른 보도행태가 '뭇모르는 서울대생'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고, 곧 피해자들을 별 것도 아닌 것을 꼬투리 잡은 것으로 사건이 여론화했다. 사건의 피해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건 해결과정인데 여론의 공격까지 받게 됐다.

언론의 이러한 태도는 또한 농민회와 학생회 사이의 지속적인 연대 활동을 논의하는 과정에도 타격을 입히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마을에서 일부 농민회는 해결의지를 보이기도 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와 이후 성폭력 사건 발생시 대처에 대해서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언론은 농민회와 학생회 측의 의견 대립을 지나치게 부각시켰고 학생회 측과 농민회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논의나 합의의 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장 연대 활동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나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현장 활동 문화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등을 다룬 보도 또한 찾기 어려웠다.

언론의 성급한 보도가 아니었다면, 이번 '서울대 농활대 성폭력 사건'은 가부장적 운동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던 현장 활동이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평등하고 대안적인' 현장활동을 근본적으로 재고해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이번 '서울대 농활대 성폭력 사건'의 사태 악화는 명백히 언론이 만들어 낸 것이다.

-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서 인용

<여성 농활>

1. 의의와 목표

- 1) 여성농민의 삶을 이해하기
- 2) 여성농민회와의 연계를 맺고, 여성농민회의 활동을 알아가기
- 3) 전반적인 여성들의 삶을 알아가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높여주기
- 4) 여성농민회와 각 학교 여학생 운동의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기
 - 여성농민회와 학생들과의 연계사업
 - 여성농민회의 발전
 - 각 학교 여학생 운동의 의식화, 조직화 과정과 주체 발굴

2. 여성농활을 준비해보자.

: 여성농활은 다른 농활대와 마찬가지로 같은 생활 패턴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농활대 안에서 진행하는 분반모임과 댕거리, 작업 중 과제가 '여성', '여성농민'에 초점이 중점적으로 맞추어져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농활 팀 내에서의 프로그램과 내용준비가 정연하게 준비되어야 '여성농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농활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1) 여성농활을 갈 마을 배치 문제

: 여성농민회가 있는 시도군과 농활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 파악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전여대협으로 신청을 합니다. 이후 전여농과 전여대협의 조율과 농민학생 연대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마을 배치 등을 결정합니다.

- ① 10일까지 여성농활을 고민하고 있는 총여학생회나 성평등 위원회, 여성학 소모임, 학교 주체들은 jydhjydh@hanmail.net 으로 신청해주세요.
- ② 신청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이름:
- 연락처/ 이메일:
- 소속학교:
- 신청 주체의 직위(총여학생회장, ○○ 학교 농활 주체 등):
- 학교에서 농활을 들어가고 있는 지역/시도군:
- 여성농활을 가게 되었을 때 조직화 예상 인원:
- 여성농활을 수행하고자 하는 이유

- ③ 배치 후 봄농활 사전 답사를 통해 마을 이장님과 부녀회장님께 인사드리고, 마을의 특징(가구수, 연령별 분포, 아이들은 많은지 등등)을 알아둡니다. 마을 지도도 그리면서 지리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2) 농활 내 프로그램과 댕거리

- 이번 봄농활부터 여성농활을 시작하는 경우 배치 이후 마을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얼굴을 익히는 첫 시작이며, 3박4일 또는 4박 5일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므로 많은 내용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가져옵니다. 아래 표를 참고로 농활을 준비하시되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유연하게 적용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진행과 댕거리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농활 자료집을 통해 제공합니다.

	작업 중 과제	분반활동	댕거리
첫 작업하는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나간 댕 어머니님, 아버지님과 인사. 자기 소개. - 작업 중 어머니와 이야기하면서 저녁에 호별방문을 할 수 있는지 여쭙어보기. - 가능하다면 저녁에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리고, 댕이 어디인지 여쭙어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간의 주전부리(부침개 등) 준비 - 호별방문: 농민 분들의 하루 일과와 농사일 이야기도 들어보고, 자녀 이야기도 들어본다. ※ 꼭 자기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갑니다. 아버지, 어머니님 성함도 꼭 기억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 FTA와 쌀 시장 개방 관련 정세와 투쟁 과정 교양 - 특히 분반활동을 통해 들은 이야기와 연동하여 왜 한미FTA를 저지해야 하는지 토론하고, 각인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둘째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하면서 어머니께 저녁 식사 후 마을 회관에서 여성농민회와의 간담회에 오시도록 이야기 합니다. ※ 사전에 지역 여성농민회와 일정을 조율하여 마을 방문이 가능한지, 어떠한 내용으로 간담회를 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p><여성 농민회와의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 간단한 다과와 편안한 분위기^^, 당일 아침에 작업나가면서 마을 곳곳에 홍보하는 대자보를 붙여두면 좋습니다. - 앞풀이: 여성농민가 노래 함께 배우기(테이프, 테크 필요) - 본모임: 간담회. 특히 여성농민의 현실과 여농 활동에 관한 것, 그리고 정세에 관한 이야기나 어머니들의 생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간담회 때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데려와야 하는 언니들이 있는 경우 농활대 안에서 아동반이 아이들을 맡습니다. ※ 어린이 날 마을에 어린이들이 많은지 파악해보고 아이들만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운동회 등을 진행, 어린이날 선물 준비 등) 	
돌아오는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한 공간을 깨끗이 청소하고, 잘 쓰고 돌아간다는 인사 대자보 등을 잊지 맙시다. -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여름농활 때 다시 뵙겠다고 인사드리고, 준비해간 유인물을 나누어드립니다.(유인물의 내용은 정세와 여성농민 관련한 글들, 혹은 알려드리면 좋을 정보 등을 담습니다.) - 마을 길목마다 인사드리는 대자보를 예쁘게 꾸며 붙여놓습니다. 		

- 본격적인 여성농활 수행은 여름농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추후 프로그램과 내용 기획안을 제출하겠습니다.

- 첫 여성농활을 수행하는 해인만큼 전여대협에서도 농활 준비부터 농활 수행까지 함께 결합할 예정입니다.